

## 비즈 프리즘 | 누적대출 3조원...P2P 금융 부실 논란

# 허위·과장공시 다반사...투자 주의보

10개업체 실제 투자자손실 24억원 사업·투자계획 정확하게 안 알려줘 차입자와 공모해 허위대출 사기도 금감원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은 "P2P금융의 부실 발생 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동아DB

누적대출이 3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한 P2P(Peer-to-Peer) 금융의 부실 운영과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의 급성장에 비해 대출상품 운영에 각종 비리와 허점이 많고, 이를 방지할 금융당국의 보호망마저 부재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과 4월 P2P 연계대부업자 75곳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2.8%, 6.4%로 집계됐

다. 90일 이상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5.0%, 12.3%에 달했다. 특히 점점대상 75개 사 중 10개 사는 실제 투자자 손실이 24억원에 달했다.

P2P금융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정보기술 기반 첨단 금융서비스인 '핀테크'의 대표적인 사업모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실제로 P2P 금융 상품이 운영되는 현실은 이런 장미빛 화려한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모습이다.

무엇보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공시가 자주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의 돈이 부당하게 대출되는지 여부를 판독하기 어렵고 이후 사기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대출심사를 P2P업체의 자회사적인 연계대부업자가 맡고 있는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데다 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연 부적격 차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담보평가의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운영에 허점이 많다 보니 P2P

업체가 차입자와 공모해 허위로 대출하거나, 업체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허위 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신청한 뒤 투자자를 모집한 사기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PF장기대출을 단기투자로 돌려막기하면서 만기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도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에스프로로 별도관리하는 투자금과는 달리 대출상환 원리금은 P2P 업체가 임의관리하다 보니 지연지급이나 횡령 등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성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P2P금융은 성장세에 비해 영세한 업체가 많아 부실 발생 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효성있는 규제가 부재한 만큼 문제점과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

## 한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21~25일

코스피지수	2460.80	▲	+0.15
코스닥지수	868.35	▼	-1.10
일 낮케이 지수	2만2450.79	▼	-479.57
중상하이 종합	3141.30	▼	-52.00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0	▼	-0.03
환율 (원·달러)	1079.00	▼	-3.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5207.27	▲	+478.19

지수는 25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 강원권 관광상품 개발·홍보 협력 하이원·아시아나·하나투어 맞손

정선 하이원 리조트(대표 문태근)는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아시아나항공 지점에서 강원도,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등과 해외 고객 유치에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후 하이원 리조트를 비롯한 참여 기관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강원권역 외국인 단체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유치 홍보활동과 마케팅 활동에서 상호협력한다.

구체적으로 하이원리조트는 현지에서 모객활동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대상 특별 상품 개발을 하고, 강원도는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각 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또한 하나투어는 기업체 인센티브 단체 모객활동을,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 특별할인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6월 싱가포르 언론사 및 여행사 관계자가 참가하는 팸투어를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9월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기업인 120명이 참가하는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하이원CC에서 개최한다.

하이원리조트 이민재 마케팅실장은 "각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싱가포르 판촉활동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며 "7월에는 하이원 워터월드가 개장해 판촉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 아니 벌써? 에어컨·제습기 구입 시기 당겨졌다

홈플러스 3~4월 에어컨 매출 30% ↑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기습적인 폭우가 잦아지면서 여름 계절전반의 성수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우선 기온 변화로 인해 에어컨 판매 증가 시기가 앞당겨졌다. 티몬이 최근 3년 5개월 간의 에어컨 관련 매출을 분석한 결과, 구매 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4월부터 에어컨 판매가 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부터 3월로 약 한달 정도 빨라졌다. 올해는 더 빨라져 2월부터 에어컨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티몬의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6% 증가했고, 3월에도 257% 상승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에어컨을 미리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었다. 홈플러스는 에어컨 사전예약 판매 기간이었던 4월12일부터 25일까지 매출이 한 자리 수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의 에어컨 매출은 30% 가까이 늘어났다.

에어컨 구입 증가 시기가 앞당겨지고, 요즘 지역에 따라 낮 기온이 30도까지 기록하면서 제조사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삼성전자는 광주 사업장의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전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에어컨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여름 가전이 제습기다. 이른 더위에다 전국적으로 제철라성 폭우가 늘면서 제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통상 제습기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요가 증가해 7월에 집중적으로 팔리는데 최근 갑작스런 폭우와 함께 기온이 높아지면서 판매가 급상승했다. 가격비교 사이트 에누리 가격비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16일과 17일 이틀간 제습기 매출은 5월 평균 매출(5월1~15일)과 비교해 643%(7.4배), 판매수는 634%(7.3배) 급상승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 "이렇게 입고 뛰면 달리는 재미가 2배"

롯데그룹 유통사업부문이 27일 서울 독성 한강공원 수변광장에서 '제2회 롯데 스타일런'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일반 마라톤 대회와 달리 참가자가 미니언즈, 슈퍼마리오 등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복장과 분장을 하고 달리는 이색 마라톤 행사다. 5km와 10km로 코스로 열렸으며 총 40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정국 기자, 사진제공 | 롯데쇼핑

## 하나금융그룹 새 모델, 손흥민 발탁

하나금융그룹이 새 광고모델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간판스타 손흥민을 발탁했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20년 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한 하나금융그룹과 손흥민이 함께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동료를

배려하고 열정과 노력으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의 성공 스토리가 그룹 경영 철학인 사람중심과 잘 부합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손흥민이 등장하는 새 광고는 6월 초 공개하며 하나금융의 경영 슬로건인 '행복한 금융'의 가치를 담을 예정이다.

정정국 기자

## 교육·퍼즐

### 에듀윌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시기 추천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 노후대비 주택관리사 자격증, 상대평가 전에 취득하세요

100세 시대.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격증에 도전하는 40·50대 중장년층이 많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경우 그간 남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여성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후대비 자격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독보적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많아지면서 여성 관리소장의 수요와 공급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여성 관리소장의 강점은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민 간 분쟁이나 민원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실상 오늘날 관리사무소장은 성별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능력만 인정받으면 정년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2020년부터 상대평가로 전환된



다. 평균 60점의 커트라인으로 주택관리사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는 2018년과 2019년 단 두 번뿐이다. 이 시기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부터 공부할 시작해야 한다.

시험 합격뿐만 아니라 합격 후 취업을 생각했을 때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인데다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영역도 주택에서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넓어지고 있어 수상복합 등도 관리소장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에듀윌은 2019년까지 합격할 수 있는 전문 커리큘럼을 학원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운영 중이다. 또한 합격 후 취업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지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 스도쿠문제

			5	6		4		
1		3		2	7			
	9				7		3	
5		9		8				4
	3		9		5		1	
7				4		2		5
	5		2					8
		8		5		4		1
7		1		8				

6	3					1		9
		5	3			1		2
9				6				8
	6			1				2
		7	6		3	4		
	2			7			1	
	9			3				5
2			7		6	9		
1		3					6	7

### ■ 스도쿠정답

8	9	5	6	1	9	1	2	7	4
7	8	4	2	7	5	3	7	8	6
5	1	2	4	6	8	9	2	1	3
6	9	8	9	5	1	7	8	4	7
1	9	6	7	4	1	4	7	3	2
8	1	9	5	7	6	4	3	2	8
4	7	3	8	2	8	7	1	5	9
2	8	6	4	7	1	8	7	6	9
9	6	8	2	7	9	7	1	4	3
1	4	7	5	6	1	3	8	2	7
8	1	4	7	3	5	9	3	8	6
7	2	7	4	5	6	9	8	3	1
8	3	1	6	8	7	2	3	1	4
4	5	4	8	3	1	6	7	8	2
6	5	1	5	1	6	2	8	4	3
8	6	9	7	8	2	9	7	1	5
4	4	8	3	8	5	9	2	1	7
2	3	2	2	1	8	7	1	6	9
4	8	3	8	3	5	9	2	1	7
2	7	9	1	6	8	9	4	7	8
9	6	1	7	4	8	2	8	9	1